



추석명절 고향 잘 다녀 오십시오 심신을 가다듬고 한번 더 도약해야 할 때!



우리 회사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전직원을 대상으로 선물을 지급하였다. 선물은 '은수저셋트', '양염젓갈', '비누셋트', '바디샴푸셋트', '미역셋트' 중에서 각자 필요한 물품을 선택하도록 배려하였다. 또한 연초에 목표로 했던 매출 1,500억원 달

성이 무난할 것으로 보여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좋지 않은 국내 경제와 해외경제를 비롯해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원자재 가격의 폭등으로 인한 중소 조선소의 위기를 다루는 기사들이 각종 대중매체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선계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본사 또한 원가 절감을 위해 다양한 아이템의 발굴과 이전의 일 진행 방식을 수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

우리는 아직 안심하고 나태해지기에는 이르다. 멈추지 않고 폭등하는 원자재 가격에 대비한 구체적인 계획이 실천과 확립으로 정착화하여 내실을 다져야 한다. 구체적인 계획의 예로 '재도장 근절'과 '공장장책임제' 등을 들 수 있다. 재도장 근절이란, 이



미 공장에서 도장해 온 물건을 이전과 같이 방치해두거나 손상하지 않고 구조적인 관리를 통해 재도장을 하는 데 많은 손실을 줄이도록 하자는 것이다. 공장에서 매끈하게 도장되어 온 물건들을 일맞은 장소와 직원들의 특별 관리를 통해 손상을 최소화한다면 도장 부문의 불필요한 인력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기대된다.

또 다른 한 가지 방안은 공장장책임제인데, 이것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정착화가 요구되는 부문이다. 직원들을 세분화시켜 공장장을 선정해 이전보다 좀 더 세분화 된 관리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세분화 된 만큼 공장장이 보다 책임감을 가지고 직원들과의 거리를 좁혀 좀 더 치밀하고 끈끈한 유대관계의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그것이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과 실천을 바탕으로 해 이제는 여러 악조건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내실을 차려야 할 때다. 큰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맡은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을 애사심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동안 심은 노력의 결실이 헛되지 않도록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슈퍼선보인'의 저력을 발휘하여 우리 모두 웃는 얼굴로 연말을 맞이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때다.

YK STEEL(전 한보철강) 최창대 대표 본사 방문



지난 달 상호 우호 증진과 발전을 위해 YK STEEL(전 한보철강) 최창대 대표이사가 본사를 방문했다. 최창대 대표이사는 평범한 기능직 사원으로 시작해 현 YK STEEL의 대표이사가 되기까지 많은 역경들을 기회로 바꾼 성공한 기업인 중의 한 사람이며, 2008년도 부산지방노

동청으로부터 노사화합 우수사업장으로 선정된 바 있다. 최창대 대표이사는 본사의 회사현황 브리핑과 설계부 등을 둘러본 후 근무환경과 복지에 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상호 우호 증진과 발전을 위해 다같이 노력하자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 전 부산문화방송 대표이사사장의 특별강연



지난 9월 8일 우리회사 옥상 교육장에서 김영 전 부산문화방송 대표이사사장의 특별 강연이 있었습니다. 김영 전 사장은 특별강연에서 조선산업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였으며 그와 더불어 우리 직원은 조선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므로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또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오늘날의 선보공업을 이룬 최금식 대표이사

역시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 사장은 5C(change, customer, creative, cooperation, clean)을 강조하며 뜻깊은 강연을 마쳤습니다.

다대2공장 한봉화 이사 취임

30여 년의 시간이 빚어낸 경험과 기술로 제 2의 도약을 꿈꾼다



지난 2일 다대 2공장 총괄이사로 취임하게 된 한봉화 이사는 (주)대선조선에서 32년간 기관의장 과정에서부터 수리선 부문에서 차근차근 성장해오며 젊음을 조선 관련 일에 투자해 왔다.

한봉화 이사는 취임하게 된 동기에 대해 "선보공업은 국내 조선 초창기에 최초로 유닛를 설계 개발하였으며, 그로 인해 한국 조선에 선구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 후에도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서서히 두각을 드러내며 지금은 더 큰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라며 포부를 털어놓았다.

또한 거기에 더해 "내가 갖고 뒀던 만들어낸 기술력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선보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선보가 성장하고 있는 힘과 자신의 30여년의 경험들이 보태진다면 더욱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직원들이 단결할 수 있도록 가족적인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직원들이 일하고 싶은 즐거운 직장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싶다는 그는 "대선조선에서 경험한 기술들을 선보에서 보다 드넓게 펼치기 위해 가족적인 분위기로 직원들을 이끄는 것은 물론 조선 분야에 있어 최금식 대표이사가 이룩한 업적과 창업정신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에 대해 당차게 말했다.

깊은 경험을 바탕으로 제 2의 도약이 되길, 대표이사의 창업정신과 잘 어우러져서 선보가 나아갈 길을 환하게 밝혀주는 또 하나의 인재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



추석맞이 관내 및 사내 성금 전달

이웃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자는 회사의 방침 아래 추석을 맞이하여 사하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300만원을 헌금하였다. 이 성금은 사하구청을 통해 사하구 관내 100가구에 1인당 3만원씩 나누어질 예정이다.

또한 사하경찰서를 통해 관내 어려운 이웃 3분을 특별지원하였으며 우리 회사에서 형편이 어려운 직원 10여명에게 특별성금을 전달하였다.

경영혁신

선보혁신NEWS

“현장혁신의 숨은 일꾼”
임영삼 부장



현장혁신 활동의 일부로 본사 건물 3층 식당에 자재대가 설치되었다. 자재대 설치를 시행한 임영삼 부장은 “현장혁신의 여러 활동으로 생산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순차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아직도 현장혁신을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불려올 효과가 얼마만큼 인지 몸소 인식하지 못하는 직원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에 장비 내용 등을 게시판에 공고하게 되었다”며 설치동기에 대해 말했다. 여태까지 상사가 직원들에게 계속해서 지시를 내리는 방식이었다면, 눈으로 게시물을 보고 자발적으로 인식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임영삼 부장은 “원가가 배로 상승했으나 말로만 들었지 실제 파급효과에 대해 모르는 직원들이 많다. 교육자로서 큰 역할을 못하지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효과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자재대 설치에 대해 구평, 영도 등 계열사 공장의 관심이 뜨겁다. 자체적으로 다른 아이템을 강구하려하는가 하면 자재대 설치의 예를 각 공장에 교대하자는 의견도 있다. 특별히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남은 자재를 재활용했다는 점은 높이 사고 있기 때문이다.

임영삼 부장은 “현장혁신활동의 시행의 변화가 눈에 보일만큼의 효과가 있는 것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다수가 아닌 일부만이 그것을 깨우치고 활동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직원들 모두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지시와 강압에 의한 업무에서 탈피해 개인발전을 위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나쁜 습관들을 타파해 새로운 시도가 필요할 때다”라며 모든 직원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덧붙여 현장혁신활동이 정착되기까지 보상부분을 더 늘려서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사용할 것을 강조했다.



최홍렬 상무의

이 한권의 책

좋은 아침



2000년 말 출간 이후 40만 부 이상 팔려나가며, 기업에 신바람 경영이라는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떨떡이는 물고기처럼』. 이 책의 저자인 해리 폴의 신작 비즈니스 우화 『좋은 아침』이 국내에 출간된다. 『떨떡이는 물고기처럼』에서 에너지가 넘치는 어시장을 통해 직장생활을 유쾌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다면, 이번에는 ‘좋은 아침’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또 하나의 비법으로 들고 나왔다.

해리 폴은 『좋은 아침』에서도 긍정적인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나아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관심이 가지는 가치를 무척 쉽고도 설득력있는

경영혁신

현장혁신

현장혁신
운영 방법



1. 발굴

- TOP 점검(공장 별 매월 마지막 주 안전교육 직후) 시 지적 및 공장별 자체개선 사항
- 현장혁신 실적/계획 발표 : 공장 별 매월 첫 주 안전교육 후 (본사 수요일, 구평 목요일, 영도 금요일)
- 현장혁신 교육 : 실적 및 교육 발표시 현장혁신(3정 5S)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2. 검토

- 발굴 과정에서 취합한 문제를 각 공장장이 검토하고 실행계획 확정
- 현장 필요여부 판단
-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 인지 확정
- 필요 자재 등 지원내용 및 일정 확정



3. 집행

- 계획에 따른 집행
- 완료사항 서버에 입력



4. 점검

- 공장장은 각 공장의 여건에 맞게 자체 점검 실시
- 매월 마지막 안전조회 후 TOP 점검(첨부 2) 실시하고, 이 때 공장담당 임원 또는 공장장은 상임고문님께 당월 완료 및 미완료 사항 보고

5.포상

- 각 공장별 공장장이 마지막 주 TOP 점검 직후 공장별 해당자 추천 (당일 18:00까지 접수 완료)
- 총무기획담당 임원은 공장별 수준평가에 따른 포상 등급 결정
- 포상 해당 공장은 첫 주 안전 교육 직후 포상



6. 업무분장

- 구역장 : 각 구역의 혁신 담당
- 공장장 : 각 공장 혁신 총괄 담당
- 총무기획 부문 : TOP 점검 운영 및 전사 혁신 종합관리

이야기로 풀어간다. ‘배려’와 ‘관심’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 활력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쉽고 빠른 해법이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스며있다.

기업에서 또 하나의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킬 올 하반기 가장 기대되는 비즈니스 우화이다.

『좋은 아침』은 사람들이 좀더 활력있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3단계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이다. ‘지지자 만들기’, ‘감동시키기’, ‘활력 유지하기’가 그 내용인데 실제로 기업에서 적용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될 지, 책 속에서 현실과 가까운 직장이야기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개인적 시련으로 인해 짜증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주인공 케이티가 ‘좋은 아침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과 그 사이에 겪게 되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담겨 있다.



회사 소식

여름사진 공모전 | 수상작 선정

프로도, 아마추어도 없어요!

지난달 회사 지원으로 사진동호회 회원들이 주체가 되어 직원들을 대상으로 여름휴가 기간 동안 추억에 남을만한 즐거운 모습을 담은 사진을 주제로 한 여름사진 공모전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에는 다양한 분야의 직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총 30여점의 작품들이 수집되었다. 공모전 시상은 애초 대상 1명, 은상 2명, 동상5명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쟁쟁한 사진실력을 가진 직원들이 많아 우열을 가리기 힘들어 대상을 시상

하지 않는 대신 은상4명, 동상4명으로 시상했다. 이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 5만원과 영화 관람권 2매가 각각 주어졌다.

- 은상 : 박상계(영도), 이재민(혁신), 최성호(영도), 최우호(설계)
- 동상 : 김상열(구평), 오창배(구평), 장형구(생산), 임영삼(고객)



회사 소식

협력업체

선양산업
탱크제작 30년 경력의 자부심으로!!



95년 설립된 선양산업은 탱크를 제작하는 업체로 선양산업의 전신인 대동산업 일 때부터 선보와 짝지 않은 인연을 맺었다. 약 12년의 시간동안 선보와의 인연을 꾸준히 맺어오다 올해 2월부터는 선보와만 작업을 같이 해왔다.

선양산업 김대성 대표이사는 "올해 2월부터는 선보

의 일을 주 업무로 해오고 있다. 2월 전까지는 여러 업체의 일을 해왔지만 지금은 선보업무들이 우리 선양산업의 전부인 만큼 예전보다 더 각별하게 신경 쓸 것이다" 라고 전했다.

경력으로 다져 온 '탱크의 원조'

선양산업의 원동력은 김대성 대표이사의 탱크제작 30년의 경력과 자부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전에는 탱크 외에도 시트 등 다른 업종과 병행했으나, 최근에는 탱크만을 제작하는 데 주력을 다하고 있다.

정말 소문난 음식점의 메뉴가 하나이듯, 선양산업 또한 그 외 다른 업종 보다는 탱크제작이라는 한 업종에 열정을 쏟아 붓고 있다.

다른 장점보다도 제품자체가 선양산업의 제일 큰 장점이라고 말하는 김대성 대표이사는 "탱크 하나만을 봤을 때 우리 회사를 따라올 회사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만큼 탱크 제작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선보에 대한 작은 아쉬움도 있다고 한다. 공장 부지가 좁다보니 납품이 미뤄질 시에 다른 공정에 돌입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다음 공정을 위해서 납품 시스템이 변경된다면 일의 효율과 시간과 공간의 절약 등 3가지의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한다.

김대성 대표이사는 "선보와의 거래에서 큰 어려움은 없지만 조금만 더 일찍 도면을 보낸다면 급작스럽게 일하는 풍경은 줄일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텐데 그런 점이 보완되지 못한 것이 조금 아쉽다"고 전했다.

김대성 대표이사는 "선보가 우리에게 탱크제작에 대한 것을 맡기고, 우리가 선보에게 탱크를 납품하는 관계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다. 선보가 있어야 선양이 있고, 반대로 선양과 그 외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선보가 존재하는 것이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한다. 여태까지 상호간의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도 서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생생현장의 소리

신부찬 소장의 팀 '금천'

서로간의 배려와 화합, 현장혁신 문제없다!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현장혁신이 진행되고 있지만 정리해야 할 것도, 바뀌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결코 만만치 않은 않다. 이 속에서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현장 전체의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팀이 있었으니, 바로 신부찬 소장이 이끄는 금천이다.

현장혁신 우수사례로 채택된 신부찬 소장의 팀은 아무것도 없던 공터에 의자를 직접 만들고 페인트 칠해 간이 휴식공간을 만들었다. 신부찬 소장은 "평소 일할 때는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 일을 해야 하고, 쉴 때는 보다 더 편하게 쉬어야 한다는 모토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하는데 쉴 공간이 없어서 아쉬움이 많았다. 그래서 작게나마 1bay 근처에 다른 동료들이 짧은 시간 편하게 쉴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전 영도공장의 옥상 휴게실이 주목받은 바 있는데 그것에

미치기에는 협소한 공간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며 말을 덧붙였다. 직원들이 보다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자신의 몫이라는 신부찬 소장은 "현장혁신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보다 더 편리한 환경에서 일하기 위해 작은 것 하나하나를 바뀌는 것이 현장혁신의 원동력이다. 작은 간이 휴게소를 만드는 것 이외에 도르래 등도 조금만 아이디어를 내면 일의 능률 최대치를 낼 수 있다"라고 현장혁신 우수사례 노하우를 전했다. 이미 몸에 익은 나쁜 습성을 버리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노력한다면 충분히 바꿀 수는 있다는 것이 신부찬 소장의 또 하나의 모토다.

신부찬 소장은 "어떤 일을 진행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에는 일의 효율을 비롯해 확연한 차이가 있다. 잘못된 부분이나 보충이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는 열린 마인드로 하나하나 바꿔야 한다. 그 일부로 우리 팀은 작게나마 아침 일찍 나와 작업장을 청소했고, 이전에는 하지않았던 밀대질도 했다. 커다란 무언가를 이루려고 발버둥치기보다는 작은 것 하나하나를 변화시키다보면 커다란 무언가는 이미 완성된 상태일 것이다. 우리도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변화시켜나가는 과정에 있다"며 작은 실천을 소중함을 말했다.

선보 칭찬 릴레이

제 30호 주인공



혼자 보다는 둘이서, 둘 보다는 다 같이!



Q 칭찬 릴레이 30호 주인공으로 선정된 소감, 주변의 반응은 어땠는지?

축하인사를 전하는 동료들이 더러 있었어요. 칭찬 받을 일을 한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 담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일을 다 같이 하는 입장에서 그저 조금 튀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용접사는 팀 안에 저 밖에 없고, 또 용접하는 것 보다 다른 일이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준다기보다는 같이 일한다는 생각을 하고 같이 일하다보니 좋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Q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근무하세요?

앞서 말했듯이 26명중에 용접을 하는 사람이 저 하나밖에 없다보니 책임감을 넘어 조금은 부담을 가지고 늘 일하고 있는 것 같아

요, 여러 사람들이 일하는 분야를 보면 조금 모자란 부분은 도움을 받고 또 다른 동료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용접에 관련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그게 자부심일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에 관해서는 빈틈없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고 그 외에 조금 더 움직여서 다른 동료들의 일을 같이 하려고 하죠. 워낙 동료들이 늘 시간에 쫓기고 힘들어하니깐 제가 조금만 더 움직이면 다른 동료들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더 열심히 일해요.

Q 31호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을 추천해주세요.

칭찬릴레이의 주인공으로 선정된 게 담당해서 다음 칭찬릴레이 주인공으로 누구를 선정할까 하는 특별히 고민해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해 본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을 선정해야하니깐 주변에서 많이 칭찬하고 저 역시 칭찬 받아야 마땅할 분으로 생각했어요. 바로 명성산업의 오상호 조장님이요, 근면성실, 말은 바 열심히 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실현하는 분이랄까, 정말 수석어구가 아닌 말 그대로 근면성실한 분이요, 이번 기회로 칭찬받아 많은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었으면 해요.

칭찬 릴레이는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선보에 정착되기를 바라며 펼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틀린그림찾기

5개



축하합니다!

본사생일

생산부
이영동 0901
이문식 0908
오남기 0911
백 준 0927
김영민 0927
이영갑 0930

생산부(순해)
방성오 0912
안종록 0925

생산부(유성)
김재희 0924

고객지원팀
이수근 0901

설계부
이문정 0929

입사기념일

생산부
허 현 0907
김수환 0913
김승우 0924

고객지원팀
임혁민 0920
조현상 0923

설계부
조정현 0918
윤우희 0918
오영석 0918

관리부
류정희 0918



SUNBO FAMILY는 여러분의 소중한 글을 기다립니다.

다양한 글을 빨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예쁘게 편집하여 사보에 실어드리고, 맥으로 사보와 함께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